

교황의 충남 천주교 성지방문 성과와 향후과제

충청남도 문화예술과장 유병덕

1. 교황의 방한 의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지난 8월15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간 한국 방문일정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갔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지도자 중 한분으로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충청남도의 당진 솔피성지와 서산 해미순교성지·읍성 등 충남일원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청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아시아청년대회에 참가한 많은 젊은이들은 파파! 프란치스코! 를 외치며 환호하였고, 많은 가톨릭신자들에게 커다란 영광과 축복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을 넘어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교황방문 행사장을 직접 찾아와 교황을 만나고 싶어 했고, 방한기간 중 많은 국민들은 교황의 행보에 눈과 귀를 기울이며 행복해 하였다. 즉, 방한기간 내내 자신을 낮추며 상처받은 이들의 아픔을 보듬는 교황의 모습은 종교와 세대를 넘어 많은 이들을 열광케 하였다. 이에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주요외신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방한기간 내내 교황은 록스타와 같은 환대를 받았다고 전하며, 특히, 소형차를 타고, 세월호 유가족이나,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 등을 만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황의 인간적이고 소탈한 모습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사회가 얼마나 부실한 토대 위에 서 있는가를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방문 의미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면과 마음속에 남겨진 두 가지 측면으로 되새겨 볼 수 있다. 먼저 외적으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통해, 묵숨까지 바치며 우리 선조들이 지키려 했던 숭고한 가치가 인정받게 되었고 더불어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천주교 역사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즉 프란치스코 교황의 내포지역 순교성지 방문과 124위 시복식을 통해, 조선후기 한계에 이른 성리학 중심의 사회질서를 넘어 평화와 공존을 꿈꾸며 스러져간 순교자들이 추구한 가치가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장으로 자리 매김하게 된 것이다. 또한, 바티칸TV, CNN 등 주요외신을 통해 당진 솔피와 서산 해미 등이 생중계됨으로써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어 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 하나하나의 가슴 속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과 경청하고 소통하는 배려의 자세, 모든 이를 감싸는 사랑의 정신을 새겨주었다. 우리사회에서 가히 “프란치스코 현상”이라할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그분이 전 세계의 가톨릭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신념을 전하고, 겸손과 배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에 감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교황의 방한 행보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소중한 가치(겸손, 배려, 사랑)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고, 종교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주었다.

2. 충남도의 천주교 역사와 성지 현황

1) 충남도 초기의 천주교역사

충남도 지역의 초기 천주교 역사에 대해서는 충남향토사연구연합회의 프란치스코 교황 충청남도 방문기념 제7회 충남 향토사 대회(2014.9.16)에서 발표한 고려대학교 조광 명예교수의 “초기 천주교의 충청도 선교와 그 사회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재정리 하였다.

(1) 초기 천주교

“초기 천주교의 충청도 선교와 그 사회문화적 특성”¹⁾을 보면, 한국 천주교는 외국인 선교사의 도움 없이 서울과 경기의 양근 일대에서 자발적으로 연구되고 탄생하였다. 이어서 천주교 신앙은 곧 호서(湖西)와 호남지방으로 확산되어 갔고, 수용 초기 천주교 신앙은 전파된 지방의 특성과 긴밀히 관련을 맺으며 확산되어 갔다.

19세기를 전후한 한국천주교회사의 초창기, 호서지방에 천주교 신앙이 전파된 과정에 대한 몇 편의 연구가 이미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연대기 자료로서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이 활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학정의” 역시 충청도의 초기 천주교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1801년 전반기 홍주의 영장을 지낸 노상추의 “일기”, “1790년 진산사건” 및 “1801년의 천주교 박해” 등의 책자에서 충청도에서 전개된 초기교회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전달해주고 있다.

(2) 충청도 선교의 전개

충청도 지역 천주교 수용은 충청도민과 서울이나 근기지역의 서학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례로는 이존창, 홍낙민, 김종현, 이도기, 이동기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우선, 내포의 사도로 불리던 이존창은 양근의 권일신에게서 글을 배우기 위해 갔다가 서학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충청도에 널리 전하는 역할을 했고 그가 살던 내포는 충청도 천주교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

충청도 천주교 전파시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조선교회가 충청인 가운데 천주교 신앙을 전수해준 사람의 동향을 감안하여 1784년 9월 이후부터 김범우가 유배당한 1785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전파지역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이 가운데서 내포지방은 충청도 천주교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이다. 달레는 이존창의 충청도 내포지방에서의 천주교 전파사실을 전하고 있다.²⁾

선교 상황을 보면, 천당과 계목이 있고 지도층이 존재하였다. 충청도 내포지역의 천주교회는 그 전파과정에서 일종의 위계조직과 강령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리고 천주교 신앙을

1) 조광, 초기 천주교의 충청도 선교와 그 사회 문화적 특성, 2014, p.11~30. 프란치스코 교황 충청남도 방문기념 제7회 충남 향토사대회(2014.9.16).

2) 달레 저, “한국천주교사” 상,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p.312~313. 존창이라고 부르는 이단원이라는 청년은 넓고 기름진 내포평야의 접경에 있는 충청도 천안군 여사울 양민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 잠깐 동안에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 그리고 그의 지식과 덕행의 평판으로 끌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입교 시켰다. 저 유명한 내포 천주교회에 처음 기초는 이렇게 다져졌다. 그때부터 내포는 늘 열심히 천주교인들과 순교자들의 못자리가 되었다.

실천하는 중심적 장소를 마련하여 회장 등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를 관장하였다. 한편, 천당의 다른 용어는 신당을 들 수 있다. 신당은 신자들의 예배장소였다.

이존창은 내포 신앙공동체 형성에 지대한 공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1791년경에 자신이 살았던 여사울의 80여 호 거주민 중 70여 호를 개종시킬 정도로 천주교 선교에 열정적이었고 그의 선교로 천주교에 입교했던 인물이 다수 확인되었다. 내포지방의 지도적 신자들은 주문모 신부의 영입에도 관여하였다. 주문모 신부의 영입에 직접 관여했던 신도로는 우선 지황, 최인길, 강완숙을 들 수 있다 강완숙은 주문모의 영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였다. 한편, 1799년 내포에서 순교했던 배프란치스코의 동생인 배마티아도 북경을 왕래하면서 주문모 신부의 입국을 도왔을 것이다. 주문모 신부는 조선에 입국한 직후 박해로 말미암아 대략 2년에 가까운 기간을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보냈다.

선교방법은 서적을 통한 전파와 집단개종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서적을 통한 전파로 1784년을 전후한 시기의 신도들은 주로 한문 서학서를 통하여 천주교를 접하고 있었다. 명, 청나라 기간 동안 한문으로 간행된 서학서는 358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중에서 1801년 당시에 이르기까지 모두 120여 종 이상의 천주교 서적들이 조선에 도입되었다. 이들 서적 가운데 대략 80여종의 서적이 한글로 번역되어 읽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도 지방에 천주교 서적의 전파는 당연한 일이었고, 천주교 서적들은 천주교가 수용되던 초기에 신앙을 전파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3) 사회적 특성

가. 천주교에 대한 인식

당시의 신도들은 천주를 대왕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군주도 “우주의 대왕”인 천주의 피조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내포지방의 신도였던 이도기의 증언을 통해 이러한 인식의 실제적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그는 “처음에는 천주 한분만 계셨습니다. 지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입니다. 창조 후에 부부와 가족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 공자, 맹자, 임금과 신하 등도 천지창조에 생긴 것입니다.”³⁾ 라고 말함으로써 천주가 모든 사회제도나 인물보다 더 위대한 창조주임을 설명하였다.

천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한 사례로는 충청도 청양에서 태어나 그 지방의 풍헌을 지낸 바 있던 김토마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천주교 신앙에 비하면 나라와 집과 가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초기의 신도들은 천주가 군주보다 높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군주에 대한 충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천주는 부모께 효도와 임금께 대한 충성의 참 근원이다. 부모께 대한 효도와 임금께 대한 충성은 10계의 제5성에 명령되어있다.”⁴⁾

주문모 신부 역시 천주교 교리에서 충효를 강조한바 있고, 당시의 신도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왕조라는 전 근대적인 국가 아래에서 왕권은 최대의 권위로 존중되고 있었지만, 천주교 신자들은 당시까지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던 왕권에 대하여 이

3) 달레, 저, “한국천주교사” 상,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p.398.

4) 달레, 저, “한국천주교사” 상,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p.402.

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게 되었고 절대적인 왕권의 상대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사회적 특성

사회적 특성은, 신분적 특성, 평등지향성, 신분평등의 실천, 무항산인, 민족종교 운동적 특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신분적 특성으로 충청도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곳은 내포지방 일대였다. 특히, 홍주, 덕산, 천안 등지에는 양인이나 천인 출신 신도들이 중심이 된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반면에 충주 지역에는 양반이 주축을 이룬 교회가 성립되어 있었다. 즉, “충주는 한강상류로서 물길로 왕래가 편리하므로 예부터 이곳에 사대부가 많이 입거 했다”는 이중환의 기록을 참고하면⁵⁾ 충주지역 신도 구성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립된 충주의 신앙공동체는 양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둘째, 평등지향성으로 충청도 지역의 천주교도들 가운데 양인 이하의 신분층이 많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신분에 대한 생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사실, 18세기말 조선에 전파된 천주교 신앙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평등에 대한 강한 지향성이었다. 물론 당시의 교회가 노비와 주인 간의 주종관계를 완전히 부인하며 평등만을 강조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당시의 신도들 중 일부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평등성을 강조 하고 있었다. 그 예로 “천주교는 크게 평등한 것이다. 거기에는 대부도 소인도 없고 양반도 상놈도 없다”.⁶⁾라는 글귀를 들 수 있다. 당시의 천주교도들은 천주교의 기본교리인 “사랑”을 연장시켜 평등을 실천하며 수직적인 사회질서의 해체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었다.

셋째, 신분평등의 실천을 들 수 있다.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던 신도들의 실천적인 사상은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신도들의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조선왕조에서 가장 낮은 신분층은 백정이었다. 이들은 타인으로부터 갖은 수모와 천대를 받아왔다. 충청도 홍주출신 백정이었던 황일광과 황차돌 형제는 당대 최고의 양반지식인이었던 정약종과 함께 살았다.⁷⁾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천민에 속했던 백정출신 황일광은 영세 입교 후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평등성과 신자들이 이를 실천하는 데에 감격한 인물이다. 그리하여 황일광은 양반출신 신자들까지도 자신을 “다른 신자들과 똑같이 집안에 받아 들였고, 이 때문에 그는 농담조로 자기에게는 자기 신분으로 보아,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 점잖게 대해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 후세에 하나, 이렇게 천당이 두 개 있다”⁸⁾고 말했다. 당대 최고의 양반이며 지식인이었던 정약종은 광주의 자택에서 백정 황일광과 같이 거주하면서 그 백정에게 지상천국을 체험시켜 주고 있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이곳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었다. 또한, 1801년 충청도 덕산에서 체포당했던 유군명과 같은 신자는 세례를 받은 이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노비들을 모두 해방시켜주기까지 하였다.⁹⁾ 충청도 예산에

5) 이중환, 擇里志, 八道總論, 忠州條, 忠州邑爲漢水 上流 水路便於往來 故京城士大夫 自古多 卜居於此

6) 달레, 저, “한국천주교사” 상,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p.388.

7) 조광 역주, “역주 사학정의” 1, 2001, p.222.

8) 달레, 저, “한국천주교사” 상,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p.174.

9) 달레, 저, “한국천주교사” 상,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p.48.

살다가 1780년 서울에 가서 중건관리가 되었던 양반출신 홍낙민도 서족인 홍지영의 처 강완숙에게 천주교를 전하면서 신분차이를 무시하였다.

넷째로, 충청도 지역의 신자들에게 자주 사용한 말은 “항산이 없는 사람” 즉 자신의 농토를 갖고 토지에 긴박되어 있던 농민이 아니라는 말로 18세기 말 조선은 지주제의 발달에 따라 토지의 집중현상이 일어났다. 그 결과 많은 농민들이 몰락하여 항산(恒産)이 없는 사람들로 전락되어 유리되어갔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충청도 내포지방에서 거주하다 제천 배론으로 거처를 옮긴 김귀동과 그의 동료들을 지적할 수 있다.¹⁰⁾ 또한, 금정역의 역졸로 있다가 서울로 몸을 피하였지만 다시 금정으로 추쇄당한바 있던 김유산의 행위도 기존의 사회질서라는 권위에 대한 소극적인 도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799년 홍주에서 죽음을 당한 박취득에게 홍주의 관장은 천주교도들이 산골에 모여드는 사실에 관해 추궁하고 있다. 당시의 관장은 천주교도의 산골은거를 두려워하고 이를 추궁했던 까닭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지방 부근의 농민저항운동자들이 산골에 은거하며 반란집단을 형성해서 지방관아에 대항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전반기에는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 저항운동이 전국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다섯째, 민중종교 운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1784년에서 1801년이 이르는 초창기의 천주교회는 일종의 민중종교 운동적 성격을 띠며 전개되었다. 이 민중종교운동이 점화된 곳은 충청도 내포지방이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민중종교 운동적 특성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그들이 지향했던 이념 이외에도 면천에서 일어난 소요사태를 통해서 확인된다. 면천고을에서는 많은 신도들이 체포되었다. 박취득은 신도들이 여러 달 동안 갇혀 있었음을 보고 용감하게 자주 그들이 갇힌 감옥으로 방문하여 위로 하였다. 그는 어느 날 수인들이 조반을 먹고 있을 때 관문을 두드리고 과감하게 들어가 관장 앞에 서서 “죄 없는 사람들을 사납게 매질하고 여러 달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은 무서운 죄가 아니냐고” 부르짖었다. 관장은 화가 나서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천주교 사건으로 옥에 갇힌 박일득의 동생으로 홍주에 사는 사람이란 대답을 했다. 박취득은 즉시 체포되었다. 관장의 입장은 매우 난처하였다. 박취득은 매우 신망을 얻고 있었으므로 온 고을 안이 동요 되면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¹¹⁾ 위 자료에서 홍주출신 박취득은 그 의형인 박일득이 수감되어 있던 곳은 홍주관할 구역이 아닌 면천고을이었음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박취득은 그 마을을 떠나 면천관아에 가서 항의했던 것이고, 그 결과 그가 체포되자 면천에서 민란의 초기 형태인 동요와 불평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박취득의 체포가 면천에서 일어난 민란동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일개 천주교 신도 때문에 민중에 의해 관장의 권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천주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도된 이와 같은 현상은 사건 당사자인 관장에게는 천주교도의 직접적인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천주교 내지는 천주교 동조자들이 실력행사를 통해 관장의 권위에 도전했을 것으로 해석 할 수 도 있을 것이다.¹²⁾

10) 邪學懲義, p.142.

11) 달래, 저, “한국천주교사” 상,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p.365~366.

12) 조광, 초기 천주교의 충청도 선교와 그 사회 문화적 특성, 2014, p.11~30. 프란치스코 교황 충청남도 방문기념 제7회 충남 향토사대회(2014.9.16.)

2) 충남도의 천주교 성지 현황

(1) 한국 천주교 성지 이해

한국천주교주교회에서 발간한“한국 천주교 성지순례”에서는, 가톨릭교회는 세계 곳곳에 수많은 성지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가톨릭역사는 230년에 불과하나 스스로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어 씨앗을 뿌리고 100여 년간 집요한 박해 속에서도 꽃을 피워 복음의 열매를 맺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한국 천주교의 역사는 짧지만 순교의 피로 수놓아진 유서 깊은 성지를 많이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지를 교구별로 정리하여 놓은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천주교 교구별 성지현황¹³⁾

교 구 명	성지 현황
서울 대교구 (10개소)	명동 주교좌성당,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성당, 광희문, 당고개 순교성지, 산성산, 새남터 순교성지, 서소문 순교성지, 옛 용산신학교 성당, 왜고개, 절두산 순교성지
춘천교구(5)	죽림동 주교좌성당, 강릉부 관아, 곰실 공소, 금광리 공소, 양양성당
대전교구 (18개소)	갈매못 순교성지, 공세리성당, 남방재, 다락골, 배나드리, 산막골, 성거산, 솔피, 수리치골, 신리, 여사울, 원머리, 지석리, 진산, 합덕성당, 해미 순교성지, 홍주, 황새바위 순교성지
인천교구(4)	갑곶, 관창리 형방과 진무영, 일만 위 순교자 현양동산
수원교구(14)	구산, 남양, 남한산성 순교성지, 단내, 미리내, 손골, 수리산, 수원, 양근, 어농, 요당리, 은이·골배마실, 죽산 순교성지, 천진암
원주교구(4)	묘재, 배론, 용소막 성당, 풍수원 성당
의정부교구(4)	마재, 성 남종삼 묘, 양주관아, 황사영 묘
대구대교구(7)	계산 주교좌성당, 관덕정 순교성지, 복자성당, 성모당, 신나무골, 진목정, 한티 순교성지
부산교구(8)	김범우 묘, 병영장대, 살티 공소, 수영장대골, 언양 성당, 죽림굴(대재공소), 한국순교자박물관, 형제순교자 묘
청주교구(3)	매괴 성모순례지, 배티, 연풍 순교성지
마산교구(6)	명례, 순교자 구한선 묘, 순교자, 박대식 묘, 순교자 신석복 묘, 순교자 윤봉문 묘, 순교자 정찬문 묘
안동교구(6)	마원(박상근 묘), 신앙고백비, 여우목, 우곡, 진안리, 홍유한 유택지
광주 대교구(4)	다산 초당, 산정동 성당, 순교자 기념성당, 옥터(곡성성당)
전주교구(11)	나바위, 되재 성당, 서천교, 숲정이, 여산 숲정이 순교성지, 전동성당, 천호, 초남이, 초록바위, 치명자산, 풍남문
제주교구(7)	관덕정, 김기량 순교현양비, 대정(정난주 묘), 새미 은총의 동산, 황경한 묘, 황사평

13) 강우일, 한국천주교 성지순례,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성지순례사목소위원회자료, 2013,11.

(2) 충청남도 천주교 성지 현황

앞의 한국 천주교 성지의 교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교구 관할의 성지가 18개소로 타 교구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내의 지역별 성지 현황을 보면,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갈매못 순교성지,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공세리성당,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남방재,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다락골(새터, 줄무덤),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배나드리, 서천군 판교면 금덕리 산막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호당리 성거산,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솔피, 공주시 신평면 봉갑리 수리치골, 당진군 합덕읍 신리,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여사울, 당진군 신평면 한정리 원머리, 부여군 충화면 지석리, 금산군 진산면 지방2리 진산, 당진군 합덕읍 합덕리 합덕성당,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해미 순교성지,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홍주, 공주시 금성동 황새바위 순교성지 등이 도내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충남도는 프란치스코 교황방문을 준비하며 천주교 대전교구와 협조하여 순례객과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내포 천주교 성지를 찾아서”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¹⁴⁾ 이 책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천주교 성지 현황을 간략히 살펴볼 수 있다.

가. 역사의 아픔을 보듬는 내포의 천주교 성지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충청도에서는 내포가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하였다. 내포는 순 우리말로 안개이다. 안쪽바다라는 뜻으로 서해가 내륙 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하여 불려진 이름이다. 지금의 충청남도 서북부에 해당하는 예산, 당진, 서산, 보령, 홍성 등이 이 지역에 속한다. 내포 천주교는 1784년, 충남 예산 여사울 출신 이존창이 내포의 첫 신자가 된 뒤, 이를 충청도 일대에 전하면서 시작된다. 한국 천주교회의 심장이었던 내포는 한국 천주교회 역사에서 참혹했던 4대 박해를 온전히 겪어내어 순교자가 없는 마을이 없다. 이런 까닭에 내포는 많은 성지가 조성되어 해마다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이후 그 수는 점점 늘고 있다.

한국의 천주교는 당시 조선의 학풍에 대해 “현실적인 학문”을 외치던 실학의 영향을 받아 뿌리내렸다. 몇몇 실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학문으로 시작하여 신앙으로 발전한 독특한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내포 천주교는 양반이 아닌 일반 양인들이 중심이 된 신앙공동체였다. 부유한 양인 신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선행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었고 이는 하층민까지 그 영향이 전파되었다.

이승훈, 정약용 등은 김범우의 집(명례방, 현재 명동성당)에서 종교예식을 행하다가 관헌에게 발각된다. “명례방 사건”으로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는 금지령이 내려지고 한국 천주교 박해역사의 서막이 오른다. 1791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의 천주교 신자인 윤지충이 모친상을 당하자, 위패를 모시고 음식을 올리는 등의 일부 유교적 제사의식을 치르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유교사회에서 제례의식을 거부하는 행위는 “역적”으로 내몰렸고, 급기야 이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 탄압과 박해는 본격화 되었다. 윤지충은 한국 천주교의 첫 순교자가 되었고 “진산사건”은 천주교의 신앙화 과정에서 전례문제로 순교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된다. 이를 신해박해라 하며, 그 외에도 일부 천주교 신앙에 대한 오해, 신분제도 폐지, 남녀

14) 충청남도, 내포 천주교 성지를 찾아서, 2014, 7 p.6-p.37.

평등 사상,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 등의 이유로 100여 년의 오랜 시간동안 박해는 지속되었다.

내포는 한국 천주교의 4대 박해로 일컫는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해를 모두 겪어낸 아픈 곳이었다. 신유년, 공식적인 죄목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기 시작한 박해로 인해 내포의 첫 천주교 신자인 이존창이 공주황새바위에서 순교했다. 전국의 천주교 신자가 1만 명 정도 되었을 무렵 기해박해가 있었고, 당시 프랑스 선교사 모방신부, 샤스탕 신부 2명이 청양군 다락골에 머물다가 자수하여 순교하였다. 한국인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이 청에서 귀국하여 포교활동을 하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1846년에 발생한 병오박해가 시작되었고 김대건 신부는 서울 한강의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이후 20여 년간 천주교 탄압이 완화 되었다. 이 시기 프랑스 신부들이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하는 등 천주교회는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1866년, 홍선대원군이 대대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한 “병인박해”가 시작되자, 프랑스 신부들을 포함한 내포의 신자들이 홍주, 해미, 보령, 공주 등지에서 순교하였다. 10여년에 걸쳐 약 8천명의 신자가 처형된 최대의 박해로 기록되고 있다.

천주교의 교세는 박해 후에 성장을 거듭하였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서양 각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끝나자, 각지로 흩어졌던 신자들이 내포로 다시 모여 들었다. 그리고 1890년, 내포는 최초로 당진 합덕과 아산 공세리 성당을 건립하였고 신앙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 최근, 내포의 옛 사적지들은 성지로 모습을 바꾸고 있다. 여사울 성지, 신리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성거산 성지처럼 신자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도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이 출생한 솔피성지, 윤지충이 제사문제로 박해받았던 진산성지, 순교자들이 처형된 홍주성지, 공주 황새바위성지, 해미성지, 갈매못 성지, 서깃골 성지 등이 조성되어 순례자를 맞이하고 있다.

i) 여사울 성지(충청남도 기념물 제177호)

여사울 성지는 예산군 신암면 신종여사울길 22에 소재하고 있다. 충청도의 첫 천주교 신자, 이존창 루도비코의 고향이다. 여사울 성지를 찾으면 가장 먼저 옛 공소건물이 순례자를 맞이한다. 공소 바로 옆에는 새로 지은 기념성당이 이국적 정취를 자아내며 서 있다. 맞은편에는 이존창의 생가 터가 있고 이를 둘러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성지를 순례할 수 있다. 성지는 이존창의 생가 터를 중심에 두고 조성되어 있어, 그곳에 서서 한눈에 성지의 모습을 담을 수 있다. 생가가 있던 자리는 표식만 세우고 그대로 두었다. 바로 옆에는 야외 제대를 마련하여 순례자들이 생가 터를 바라보며 미사를 드릴 수 있다.

ii) 솔피성지(충청남도 기념물 제146호 / 국가사적 제529호)

솔피성지는 당진시 우강면 솔피로 132에 소재하고 있다. 2014년 8월 15일 아시아청년대회가 개최된 곳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시아 청년들과 대화하기 위하여 방문한 곳이다. 우리나라 첫 번째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탄생지이다. 김대건 신부가 자신의 목숨과 바꾼 신앙은 선조들의 모범으로 형성되었다. 증조할아버지 김진후는 이곳에서 50세의 나이에 천주교를 받아들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해미에서 순교하였고, 작은 할아버지 김중환은 대구에서, 아버지 김제준은 서울 서소문 밖에서, 김대건 신부는 1846년 한강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4대에 걸쳐 순교자가 살던 생가는 “한국의 베들레헴”으로 불린다.

iii) 합덕성당(충청남도 기념물 제145호)

합덕성당은 당진시 합덕읍 합덕성당2길 22에 소재하고 있다. 합덕성당은 한국천주교회 역사의 산 증인으로 그 전신은 프랑스 퀴를리에 신부가 예산군 고덕면에 건립한 양촌성당이었고 1899년 합덕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당의 7대 사제인 페랭 신부의 재임기간에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프랑스 선교사, 페랭 신부는 30년간 합덕성당 주임신부로 활동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병까지 치료해 주었다고 한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모두 남쪽으로 피난하던 때, 페랭 신부는 혼자 남아 합덕성당을 지키던 끝에 북한군에 납치, 피살되었다. 성당구역 내에는 페랭신부의 순교비와 순례자들을 위한 공간인 유스호스텔이 운영되고 있다.

iv) 공세리 성당(충청남도 기념물 제144호)

2005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선정된 공세리 성당은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성당길 10에 소재하고 있다. 1922년에 지어진 고풍스런 성당 건물이 주변의 오래된 나무들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성당 내부는 처음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지금도 여전히 옛 신앙인들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 예부터 공세리는 포구를 가진 교통의 요충지였다. 충청도 일대에서 거둔 많은 세곡들을 보관하는 “공세 창고”가 있었고, 공세리라는 지명은 여기서 유래한다. 그 공세창고가 있던 자리에 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v) 신리성지(충청남도 기념물 제176조)

신리성지는 당진시 합덕읍 평야6로 135에 소재하고 있다. 신리성지는 조선 천주교회의 중심지로 주민 400여명이 모두 신자인 마을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다. 신리는 조선시대 천주교 수용 초기부터 형성된 가장 큰 교우촌(비밀신앙 공동체, 카타콤바)이다. 이곳은 김대건 신부와 함께 입국하여 내포를 중심으로 활동한 다블뤼 주교가 머무른 전통한옥이 옛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현존하는 유일한 박해시기 주교관이다. 1866년 병인박해와 1868년 무진박해를 겪으며 한때 텅 빈 마을이 되기도 했던 신리 마을은 전체가 피난하였다가 다시 모이고, 심지어 주민모두가 죽음을 당한 순교지이다. 인근에는 이름도, 얼굴도 없는 순교자들의 묘가 순례자들의 위로를 받는다.

vi) 홍주 순교성지(충청남도 기념물 제171호)

홍주순교성지는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37에 소재하고 있다. 홍주성지는 천년의 역사 흔적과 순교의 숨결이 일상 속에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이 찾는 순례지 가운데 하나이다. 2014년, 홍성의 홍주 순교성지는 자그마한 성당을 마련하여 순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홍성역에서 하차, 홍성군청까지 도보로 25분 거리이다. 홍성군청에서부터 감옥터, 참수터, 생매장터 등의 순교터 성지 6곳은 옛 관아 주변에 이웃하여 도보로 순례하는데 발걸음이 버겁지 않은 곳이다.

vii) 해미 순교성지

해미성지는 서산시 해미면 성지1로 13에 소재하고 있다. 2014년 8월 17일 아시아청년대회 폐막미사 이전 오전에 아시아 주교회의가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성지는 이름 없는 순교자들의 땅으로 여섯골로도 불리고, 해미읍성 감옥터 옆에는 지금도 늙은 호야나무가 있고 서문 밖에는 피의 제사상인 자리개돌이 있다. 병인박해 시기, 해미천 양쪽 들판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생매장된 것으로 전해지며 그 가운데에서 이름이 밝혀진 순교자는 132명에 불과하다. 이에 이름 모를 순교자들의 생매장터 인근에 이들을 기리기 위한 순교탑이 세워져 있다.

나. 순례자에게 위로와 마음의 평화를 주는 천주교 성지

i) 진산성지

진산성지는 금산군 진산면 실학로 207에 소재하고 있다. 진산은 본래 전라도 땅이었으나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충청남도 금산군에 편입되었다. 진산사건은 1791년, 윤지충과 권상연의 유교식 제사 거부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한국 교회 초창기부터 신앙을 받아들인 윤지충의 어머니 권씨 부인은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마라”는 유언을 남겼다. 1791년 5월, 윤지충은 정성을 다하여 모친상을 치렀으나 외종 사촌 형인 권상연과 상의하여 유언에 따라 음식을 드리거나 신주를 모시는 등의 유교 제사의식을 행하지 않았다. 당시의 유교사회에서 이는 패륜 행위로 받아들여졌고, 체포령이 떨어지자 윤지충과 권상연은 자수하여 전주의 전라감영으로 압송되어 참수 처형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 둘은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ii) 다락골 성지

다락골 성지는 청양군 화성면 다락골길 78-6에 소재하고 있다. 오서산 기슭에 자리한 청양 다락골은 산중턱에 50가구가 채 안 되는 인가가 모여 있는 두메산골이다. 면소재지에서 계곡을 따라 오르면, “성지 줄 무덤 가는 길”이란 표지판을 만난다. 이곳에서 마을 뒷산을 마저 오르면, 항아리 모양을 한 “십자가의 길 14처”가 있다. 그 옆을 지나면 경주 최씨의 선산 산등성이에 이름 없는 순교자들의 묘와 묘비들이 세 곳으로 나뉘어 줄지어 있다. 공주 황새바위와 홍주읍성 등지에서 처형된 순교자들의 시신을 그 친척들이 수습하여 이곳에 옮겨 묻은 것으로 전해질뿐, 무덤의 주인을 알 길이 없다. 그저 하나의 봉분에 여러 시신을 줄줄이 묻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 줄 무덤이다. 청양의 다락골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 그의 첫째 아들이며 한국의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토마스 신부 집안의 고향이다. 다락골 입구는 1791년 신해박해를 피해 최양업 신부의 조부가 자신의 어머니(내포의 사도 이존창의 누이)를 모시고 들어와 정착한 곳으로, 이들이 일군 땅은 “새터”로 불린다. 새터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면서 마을이 형성되고 새터 마을은 다락골 신앙공동체의 시작이 된다.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여러 순교자들이 신앙을 잘 간직해온 마을이다.

iii) 성거산 성지(충청남도 기념물 제175호)

성거산 성지는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산길 394에 소재하고 있다. 한국의 성지 중에도 보기 드문 해발 579m로 차령산맥 줄기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특히 봄, 가을의 야생화와 단풍이 이루는 절경은 순례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야생화 전시회가 꾸준히 개최되어 2014년에는 “야생화는 말 한다”라는 제목으로 10회째를 맞이하기도 했다. 박해시기, 성거산 일대에 숨어 신앙생활을 했던 순교자들은 “숨어있는 꽃, 은화”라 불렀는데 성거산 곳곳에 피어있는 야생화는 무명의 순교자를 상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거산 성지의 야생화 전시회는 자연 속에 있는 그대로의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전시형태이다.

iv) 갈매못 순교성지(충청남도 기념물 제188호)

갈매못 성지는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610에 소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일한 바닷가 성지이다. 갈매못은 이곳 바다가 육지와 섬으로 둘러싸여 마치 연못 같아 보인다하여 “목

다른 말에게 물을 먹이는 연못”이란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갈매못 성지가 있는 지역은 서해안 천혜의 항구로, 조선시대에는 수군절도사가 주둔하던 수영이 있던 곳이고 해변 모래밭은 수군들의 훈련장이었다. 병인박해 당시, 신리에서 잡혀온 다블뤼 주교 일행과 이름 모를 순교자들이 갈매못 모래사장에서 처형되었다. 내포지역에서 체포된 순교자들이 서울로 이송되어 그곳에 갇혀 지내다가,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다시 멀리 먼 바닷가로 걸어왔다. 고종의 병환과 국혼을 앞두고 서울에서 부정한 죄를 흘릴 수 없다는 명분이었으나, 다블뤼 주교 일행은 수많은 신자들을 가두고 처형한 공주 황새바위, 해미읍성, 홍주목 등이 아닌 멀고 먼 바닷가로 보내졌다. 병인박해에 앞서, 프랑스 함대가 앵베르 주교, 모방, 샤스탕 신부의 처형에 책임을 묻기 위해 서해안의 외연도에 정박하였다. 안면도 앞에 있는 외연도를 서울의 양화진으로 잘못 알았던 것이다. 이 사건은 조선 영해침입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이 촉발되어 흥선대원군은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과 박해를 가했고(병인박해) “서양 오랑캐를 내친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어 외연도에서 가까운 갈매못을 프랑스 선교사들의 처형지로 택한 것이다.

v) 서짓골 성지

서짓골 성지는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439-2에 소재하고 있다. 150년간 잊힌 땅이자 갈매못 순교자들의 안식처로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석죽골”이나 “서재골”이라고도 불리는 산골짜기 서짓골은 작은 교우촌이었고, 박해를 피해 신자들이 다수 은거했던 곳이기도 하다. 150년 전인 1866년 병인박해 때, 보령 갈매못 성지에서 순교한 다블뤼 주교, 오메트르 신부, 위앵 신부, 신도 회장 장주기 등 4구의 시신이 수습되어 서짓골로 옮겨졌고 15년 6개월간 이곳에 안장되었다. 시신이 들짐승들에게 훼손된다는 소리를 들은 20여 명의 신자가 순교자들의 시신을 소중히 여겨, 모진 박해시기의 큰 위험을 감수하며 옮긴 것으로 전해진다.

vi) 황새바위 성지(충청남도 기념물 제178호)

황새바위성지는 공주시 왕릉로 118에 소재하고 있다. 가장 많은 순교자들의 고향, 황새조차 날아들지 않는 슬픈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바위 위로 소나무가 늘어져 황새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라 하여 황새바위, 천주교 죄인들이 “항쇄”라는 큰 칼을 목에 쓴 채 바위 앞에 끌려가 처형되었다 하여 “항쇄바위”라고도 불린다. 황새바위성지는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를 기록으로 남긴 최대의 순교지이다. 당시 공주에는 충청도를 관할하는 감영이 설치되어 있어, 충청도 지역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라도, 한양 등지의 신자들까지도 압송되었던 곳이다. 온갖 고문과 회유에도 배교하지 않은 천주교인들이 황새바위에서 처형되었다. 처형된 순교자들의 머리는 본보기가 되도록 마을 나무에 오래도록 매달아 두었고, 그 시신은 황새바위 앞에 흐르는 제민천에 버려져 이를 피로 물들였다.

공주 공산성과 마주한 들머리 언덕 위에 자리한 황새바위 성지는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하여 그 순교 터를 매입, 1985년 11월 7일 높이 13.8m의 순교 탑을 세웠다. 순교탑에서 고개를 돌리면 다듬어지지 않은 12개의 돌기둥이 서 있다. 이름 없는 순교자들의 묘 비석이 자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한다. 그 옆에는 순교자 248위의 명패가 새겨져있는 돌무덤 형태의 무덤 경당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성지 안에는 기념성당과 성체 조배실이 마련되어 있다. 황새바위 성지는 다른 성지들과 비슷하게 병인박해가 시작된 1866년과 그 다음해, 가장 많

은 신자들이 희생되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내포의 사도라 불린 충청도의 첫 신자, 이준창이 이곳에서 순교한 이래 문헌상 마지막 순교자가 있던 10여 년간 줄곧 피로 물든 땅이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목을 베어 죽이는 참수형, 목을 움아매어 죽이는 교수형, 옥사와 매질 등을 당했다. 최 연장자로는 84세의 노인이 1866년에 옥사하였다. 최연소자로는 10살이 채 안된 여자아이가 같은 해 4월에 교수형을 당했다.¹⁵⁾

3. 교황의 충남도 방문성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식 사목방문(Official pastoral visit)의 일환으로 아시아청년대회 행사 참석차, 당진 솔피성지(8월15일)와 서산 해미순교성지 및 읍성유적(8월17일) 방문하였다. 교황의 충남도 방문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교황의 충남도 방문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¹⁶⁾ 각종 언론이나 전문가 토론회, 천주교 대전교구, 충남도, 서산시와 당진시 그리고 중앙정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았다. 특히, 충남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다녀간 직후인 2014년 8월23일부터 8월24일까지 2일간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설문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천주교 인지도, 교황방문 이후 지역의 명소화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1) 성공적인 국민방문 행사 지원으로 충남행정의 위상 강화

충남도는 교황방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규모 행사의 안전, 방문객 편의제공, 교황께 대한 정중한 영접에 중점을 두고 천주교 대전교구와 지방정부 간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시아청년대회 등 주요 종교행사는 교황방한 행사를 주관하는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천주교 대전교구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되, 대규모 참가자의 안전관리, 방문객의 편의제공, 취재지원과 홍보 등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충남도는 교황방문 준비 세부계획을 수립¹⁷⁾ 및 추진하였다. 교황방문 준비단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6개 실무T/F로 구성하고, 충남도내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및 교황방한 정부지원위원회와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였다.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관련 기초자치단체와 수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교황방문 행사를 빈틈없이 준비하였다. 아울러 교황방한 정부지원위원회에 소속된 국무조정실, 외교부 의전장실, 문화관광체육부 중무실, 청와대 경호실·교육문화수석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 국토부 교통물류실, 경찰청 경비국,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과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 행사가 끝난 이후, 중앙정부, 천주교 대전교구 그리고 국내외의 각종 언론으로부터 충남도의 수준 높은 행정지원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15) 충청남도, 내포 천주교 성지를 찾아서, 2014, 7 p.58-p.59.

16) 충남도, 프란치스코 교황 충남 방문, 지역민들의 생각은, 2014.08.

17) 충남도 교황방문 지원세부계획, 2014.03

(1) 내방객 편의지원

행사장 안내, 유모차 대여, 의료지원 등 종합안내소 설치 11개소(당진5/서산6), 이동화장실 84동(솔피30/해미읍성54), 급수대 설치 9개소(솔피3/해미읍성6), 자원봉사자 3,710명(당진310/서산3400) 모집·운동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2) 소방안전 및 시민 응급의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소방점검 실시 및 안전순찰(101조 202명) 근무조 배치·운영, 우발사고에 대비하여 성지별 취약장소에 소방인력을 고정적으로 배치·운영하였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EMS헬기 2대를 대기·운영하였고, 행사 참가자 및 내방객 대상 현장 응급의료소 18개소 설치·운영과 24시간 응급실 4개소, 비상약국 13개소 등 안전한 행사를 위해 내실 있게 지원하였다.

(3) 교통대책

주요 교통지점 및 행사장 주변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240개소(당진140/서산100)와 폐막미사에 따른 해미읍성 주변도로 교통안내를 위하여 해미IC 인접도로, 해미읍성 외곽도로에 안내요원 1,500명을 배치하여 질서를 유도하였다. 또한,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자 당진 솔피성지 인근 국지도 70호선, 우강 송산도시개발지구, 합덕일반산업단지 등에 55천명, 서산 해미읍성 인근 서산고등학교와 홍성일반산업단지 등에 65천명 수용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원활한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큰 교통 혼잡 없이 행사장에 접근할 수 있었다.

(4) 교황 주요이동로 기반시설 정비

당진 우강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 조성, 우강·합덕 주요 간선도로 정비 및 도로변 꽃길조성, 해미면 소재지 간판, 시가지 주요도로 덧씌우기, 노상 적치물 제거 등 도로환경 정비와 꽃길 조성 등 교황 주요이동로 주변을 일제정비 하였다. 특히, 마을 안길정비와 꽃길조성에는 마을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참여 하였다.

(5) 정중한 교황영접 및 환영분위기 조성

교황의 정중한 영접과 환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강초~솔피성지 진입로 등 주요 교황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환영깃발과 배너를 설치하였다. 또한 가장 정성된 환영인사를 위해 교황께서 좋아하시는 문장인 ‘자비로이 부르시니(Miserando atque eligendo)’와 교황 집무실에 비치된 성화 ‘매듭을 푸는 마리아(요한 슈미트너 作)’를 당진과 서산 행사장에 게시함으로써 교황님과 동행하였던 바티칸 관계자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 천주교 성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충남도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이후, 충남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교황방문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6명은 교황 방문으로 도내 천주교 성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거나 처음 알게 됐다고 답하였다. ‘교황 방문지에 대한 관광 명소화 추진은 누가 하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는 국가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과 관련한 충남도의 준비가 어떠했는가?’ 질문에 대다수 답변이 잘됐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응답자의 83.9%는 교황의 서산·당진 방문 사실을 ‘들어봤고,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도민 대부분이 교황의 충남 방문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교황을 소박하지만 정중하게 맞이하기 위한 충남도의 준비에 대해서 응답자의 60%가 ‘대체로 잘 준비한 것 같다’고 답하고, 17%는 ‘다소 부족’했다고 답했으며, 23%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긍정 평가가 67%로 가장 높았고, 서산과 당진 거주민 모두 평균 이상의 긍정 평가를 했다.

도내 천주교 성지에 대해서는 21.1%가 교황 방문으로 더 자세히 알게 됐으며, 23.7%는 이번 교황 방문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답했다. 도민 10명 중 4명 이상이 교황 방문으로 도내 천주교 성지를 새롭게 인식하거나 더 확실하게 인식한 셈이다. 나머지 중 53.7%는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교황 방문지에 대한 관광 명소화 추진 주체로는 27.9%가 ‘국가’를 꼽고, 24.4%는 충남도를, 18.2%는 서산시와 당진시 등 해당 자치단체를 지목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천주교 성지이므로 종교교단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19.2%로 나타났고, 모른 다거나 무응답은 10.3%로 집계됐다.

도민 상당수는 이와 함께 이번 교황 방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산·당진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항목에 응답자의 75.4%가 공감을 표했다. 특히, 서산시민의 경우는 92.8%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서산시민의 공감도가 높은 것은 언론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충남지역 전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항목에는 59.9%가 공감을 표했다.

3) 천주교 역사를 재조명하는 계기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 온지 약 230년 정도 되었다. 성리학 이념에 의해 지켜졌던 조선은 18세기 이르러 국가의 기본원리가 무너지고 성리학은 사회규범으로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을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서학의 가치에 대해 내포지역의 선조들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이해하고 깊이 받아 들였다. 당진, 서산, 예산, 홍성, 보령 등 내포지역의 부유한 양인들은 가지고 있는 쌀이나 물건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함께 생활하는 신앙공동체도 이루게 되었다.

평등의 가치에 기초한 이러한 공동체는 그동안 국가를 지탱시켜온 성리학적 가치와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 내포지역의 선조들은 국가로부터 100년 가까이 탄압과 박해를 받는 아프고 슬픈 역사를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충청남도의 천주교 성지를 두 번이나 방문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윤지충 등 124위의 시복식을 거행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버

리며 까지 지키려했던 평등과 인간 존엄을 향한 숭고한 가치가 다시금 높이 평가 받게 되었다.

따라서 금번 프란치스코의 방문을 통하여, 과거 우리 선조들의 아프고 슬픈 천주교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4) 충남도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기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일정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천주교 성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필자도 역시 교황방문 준비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이를 잘 모르고 있었다. 교황의 국민방문 준비업무를 하면서 천주교 대전교구를 방문하거나 성지신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며 성지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교황방문이 발표된 이후에도 모 대학 교수는 “교황께서 방문하는 솔피성지, 해미성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곤 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여 보니 충남도이더군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교황의 한국 방문시기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충남도의 성지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졌다. 교황이 방문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 미리 방문해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충남지역의 성지에 대하여 검색하는 등 교황방문을 계기로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현장 점검을 위해 주말에 해미성지와 읍성을 가서 보았을 때에도 필리핀이나 대만에서 온 관광객들이 관광버스에서 내려 “이곳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는 곳이야?”고 묻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또한, 교황께서 다녀간 후에는 서산 해미읍성의 경우 평일에는 20%정도(5백명→7백명), 주말에는 50%정도 각각 증가¹⁸⁾(2천명→3천명), 솔피성지는 평일에는3.3배(150→500명), 주말에는 3.1배(350→1,100명)각각 증가¹⁹⁾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충남의 천주교 성지에서 개최하는 아시아청년대회 행사에 두 번이나 방문하면서 바티칸TV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유럽에 송출하거나 CNN 뉴스를 통하여 전 세계에 충남도와 성지가 소개 되면서 충남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5) 교황방문 준비를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

교황방문 준비는 비단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성지주변 마을의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단체, 자율방범대, 통장협의회, 노인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자치회의 구성으로까지 이어졌고, 이 자치조직을 통하여 마을 안길청소, 꽃길조성, 방문객안내 등 주민자치에 대한 학습기회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4. 교황의 충남도 방문을 통한 향후과제

1) 추진 기본방향

프란치스코 교황방문의 성과에 이어 교황방문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 성과에만 안주하지 말고, 재조명된 우리지역 천주

18) 자료출처: 서산시 해미읍성관리사무소.

19) 자료출처: 당진시 문화관광과.

교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방문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천주교 역사문화자원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통한 모범적인 지역공동체 형성을 추구하고, 국민들은 물론이고 아시아와 세계인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마련코자 ‘프란치스코 교황방문 후속조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추진방향으로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을 계기로 재조명된 우리지역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충남의 세계적인 명소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천주교계,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천주교 역사문화자원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끌어 내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의 세계적 명소화와 민관협력을 통한 역사문화자원과 지역사회와의 통합이 충남을 ‘치유와 희망의 쉼터, 평화와 화해의 명소’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분야별 추진계획

(1) 교황방문의 성과 정리와 열기 지속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우선 지난 8월 우리지역에서 개최되었던 2014 천주교 아시아청년대회 행사와 관련된 교황방문성과를 정리하고, 교황방문의 열기와 여운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충남도에서는 금년도 2월 교황청 실사단 방문에서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교황방문 행사의 준비과정과 분야별 추진상황 등의 기록보전을 위한 ‘2014 프란치스코 교황방문 지원 백서’를 연말까지 발간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방문 행사를 추진하거나 국가나 타 종교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충남도정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 기록이 가치 있게 보존될 것이다.

이어 교황방문의 열기와 여운을 지속하기 위해 우선적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방문 기념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교황께서 다녀가신 성지뿐만 아니라 충남도내의 다양한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을 어떻게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 수 있을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국민제안 공모전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황의 메시지·죽헌·선물·제의 등의 전시, 기념관 건립 등 교황방문과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을 지역주민은 물론 천주교계와 관련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교황방문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살려나가고자 한다.

(2)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정비와 세계적 명소화

그 다음으로 충남지역의 각 시군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정비하여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드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선5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내포천주교순례길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순례길 명소화 콘텐츠 발굴, 각종 편의시설 구축, 안내체계 정비, 관리주체의 지정·운영, 홍보방안 강구, 순례길 노선 컨설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지순례길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천주교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초기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주민공동체의식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도내 곳곳에 산재하여 있는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을 잇는 천주교 순례길을 보다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장하고, 각 성지별 정비를 종합적 관점아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일도 병행할 것이다. 1단계로서 하부내포 성지(부여 삼티, 청양 다락골, 보령 갈매못 등) 순례길을 개발하고, 2단계로서 기타 도내의 성지(천안 성거산, 금산 진산 등)들을 차근차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 하부내포 성지 순례길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노선확정과 시설투자, 정부예산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어 2단계 성지 정비는 2015년도 상반기에 기본구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노선확정과 시설투자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 지역공동체 형성 및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의 지역 성장 동력화

앞서 기본방향에서 언급했듯이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의 명소화를 위해서는 성지주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성지와 순례길을 포함한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이 지역사회와 유리되지 않고 서로 연계되고 통합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구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도에서는 교황방문을 계기로 지역주민과 성지가 하나의 모범적인 생활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 천주교,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논의구조를 구축하고, 이러한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마련, 사업발굴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내포지역 ‘천주교 순례길 활동가’ 운영사업이라든지, 마을시설을 활용한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주민이 참여하는 성지·순례길 명소화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나 도보여행자 카페 운영, 기타 지역소득원 개발사업 등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성지와 주민이 모두 행복한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서산 해미와 당진 합덕·우강 등 이번 교황방문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그랬듯이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이 소재한 지역의 시가지도로와 인도, 하천과 간판 등을 정비하고, 소공원과 쉼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감으로써 마을의 주거환경을 역사문화자원과 조화롭게 개선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성지주변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공영개발 사업 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과 마을의 공동 발전이라는 선순환적 고리를 창출해나갈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과 충남 방문 의미, 충남도의 천주교 역사와 성지 현황, 그리고 교황의 충남 방문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4박 5일의 방한기간 동안 인간적이고 소탈한 모습과 가슴을 울리는 따뜻한 메시지를 통해 가는 곳마다 종교와 세대를 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큰 울림을 남겨 놓았다.

특히, 충남방문 준비를 위한 지역주민과 천주교 대전교구, 지자체 등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성공적인 행사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내방객의 안전과 편의제공, 그리고 정중한 교황영접은 바티칸 교황청, 정부 관계자 그리고 국내외의 언론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또한, 이번 교황방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지역의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을 보다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과거 선조들이 인간의 평등과 존엄의 가치를 지키려하다 순교한 아픈 역사가 이제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정립하게 되었다. 더불어 천주교 성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남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교황의 충남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더욱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황의 충남방문 열기와 여운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후속 기념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교황방문 백서를 통해 기록을 보존하고, 교황방문 기념사진전이나 명소화를 위한 국민제안, 교황의 메시지·죽혼·선물·제의 등의 전시와 기념관 건립 등을 통해 교황방문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살려나가고자 한다.

둘째, 우리지역의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비·보완하여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민선5기 때부터 이미 추진해 오고 있는 내포천주교순례길 사업을 더욱 보완하고, 하부내포 성지 등 도내 곳곳의 주요 성지들을 이어 순례길을 보다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장하면서 각 성지별 정비를 종합적 관점아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일도 병행할 것이다.

셋째, 성지와 마을이 유리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하여 모범적인 생활공동체를 키워나가고, 주거환경개선을 병행하여 성지를 마을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 천주교,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논의구조를 구축하고, 이러한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소득과 연계하여 행복한 마을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

결론적으로 교황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간 과제는, 교황방문을 계기로 더 큰 미래를 향해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성지와 주민이 하나되는 지역공동체 성숙의 계기로 삼고, 충남도민과 천주교계, 지자체, 유관기관이 하나가 되어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을 세계적으로 명소화하는 것이다. 이에 충남도가 “치유와 희망의 쉼터, 평화와 화해의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

[참고문헌]

- 조광. 2014. 「초기 천주교의 충청도 선교와 그 사회문화적 특성」, 프란치스코 교황 충청남도 방문기념 제7회 충남향토사대회“충남의 초기 천주교-역사,유적활용”.
- 양투안 다블뤼. 2014.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당진 : 내포교회사연구소.
-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성지순례사목소위원회. 2011.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충청남도. 2014. 「내포 천주교 성지를 찾아서」.
- 유병덕·최영화, 2014,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충남리포트 제121호.
- 달레. 1979. 「한국천주교사」, 서울 : 한국교회사연구소.
- 충청남도. 2014. “프란치스코 교황 충남 방문, 지역민들의 생각은” 설문조사.
- 충청남도. 2014. “교황방문 지원세부계획”.
- 교황방한 정부지원지원회. 2014. “교황방한 정부지원 세부계획(안)”.
- 조국. 2014. “‘저파(低派)’프란치스코가 남긴 과제”, 경향신문 오피니언 외 관련 신문기사 다수.

참 고

충남의 천주교 성지와 순례길 현황

